

다올 선박

2026.03.29 [815호]

DAOL 다올투자증권

중동 LNG 공백을 준비하는 다른 프로젝트들

조선기계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이준범 junebum34@daolfn.com

코멘터리 of 조선

▶ 수에즈막스 탱커 신조선가 상승, 벌크 중고선가 상승

① 수에즈막스 탱커 신조선가가 88.5백만달러로 올랐고, 벌크선 중고선가도 선형별로 1.4~2.9% 올랐습니다.

▶ 호르무즈 해협 봉쇄, 중동 LNG 수출 중단에 파급과 우려

② EU는 2027년말까지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을 완전히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및 동유럽 인프라 확충, 동지중해 가스 자원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합니다. 중동 가스가 막히는 마당에 큰 부담입니다.

③ 일본이 호주에 LNG 증산을 요청했지만, Woodside는 산업 특성상 단기간에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합니다.

▶ 그러나, 준비하는 LNG 업체

④ Venture Global은 CP2 ph2의 FID에 이어, 지난주에는 DOE로부터 Plaquemines의 생산량을 기존 20MTPA에서 27MTPA로 13% 늘리는 승인을 득합니다.

⑤ Cheniere Energy는 Corpus Christi의 확장 프로젝트 Train5의 가동을 금요일에 시작합니다.

⑥ Total Energie는 미국 해상풍력 2개 사업권을 포기하고, 대신 해당 자금 9.3억달러 전액을 미국 LNG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결정합니다.

⑦ 중동 위기 속에서도 미국 LNG 내수 가격은 3달러/MMBtu로 안정적입니다. 미국의 LNG 수출이 내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논리에 힘이 실립니다.

⑧ 미국 FERC 의장은 LNG 터미널 인허가를 책임감 있게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⑨ Shell은 베네수엘라에서 가스 프로젝트 1~2개를 연내 FID를 내리고,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⑩ Inpex는 호주 Beetaloo 세일가스 지분을 인수했고, Ichthys LNG 확장을 개시합니다.

▶ 그리고 LNG 발주가 들어옴

LNG 물동량 감소가, 선박 계선 증가, 운임하락으로 이어지고, LNG선 신조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은 4척의 LNG선을 수주합니다.

⑪ 삼성중공업이 Celsius로부터 180k-CBM LNG선 2척을 수주합니다. 2028년 9월 인도물의 신조선가는 256.8백만달러로 아주 좋습니다.

⑫ 한화오션도 단골 Maran으로부터 LNG선 2척을 수주했는데, 2029년 5월 납기의 신조선가는 250백만달러로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물동량 감소 및 운임 하락 우려에도 LNG선 투자를 하는 이유가 중요할 것입니다. 당기에 위기가 있더라도 2~3년 후에는 노후 스티머 LNG선 스크랩 이후, 중동 외 지역의 LNG 터미널 물량 증가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조선업종 및 LNG 신조 시장을 걱정하지만, 늘 위기에서 나비효과로 큰 수혜를 본 조선산업 사이클을 기억합니다.

▶ 탱커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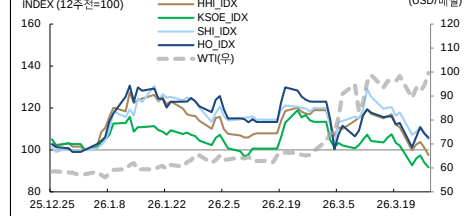
⑬ 한화오션은 Maran으로부터 VLCC 3척도 수주했는데, 신조선가가 130백만달러로 올랐습니다.

⑭ HD현대중공업은 Gulf Energy Maritime로부터 MR 6척을 수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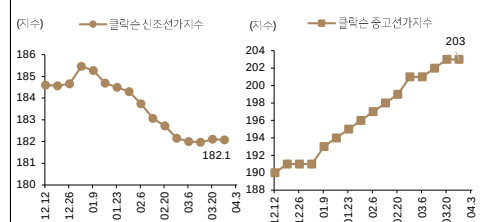
⑮ 화제의 자금상선이 VLCC 다음으로 수에즈막스 탱커 매입도 개시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모니터링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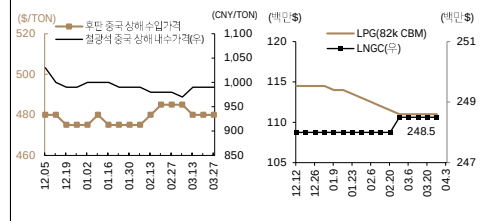
▶ 조선주 증가



▶ 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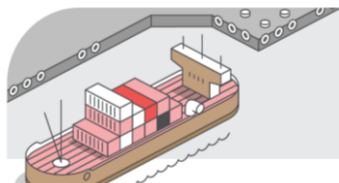
▶ 후반, 주요 선종 신조선가



주시 뉴스

수주, 수주실

	수주	03월4주 주시뉴스	수주	03월3주 주시뉴스
선가 & 생산능력		△ 수에즈막스 탱커 신조선가 상승, 벌크 중고선가 상승		△ 신조선가 상승, 중고선가 2주 연속 상승 △ HD현대인도 타일, 두주 조선 물량에 구축 본격화
그린십		△ Exmar 일도나 D/F 올에 샹크에 2척 인도		△ 일보 3는 양모, 마 방한선 설계 협력
LNG		△ Celsius Tankers, 삼성중공업에 LNG선 2척 추가 발주하며 선대 26척으로 확대 ▲ 한화오션, Maran Tankers로부터 VLCC 3척 및 LNG선 2척 수주 ▲ 미국 LNG 인프라 승인 절차 간소화 추진, 미국 시애틀에서 95%가스에 의존 ▲ Venture Global, 중동 LNG 공급 중단 공략, Plaquemines 수출량 +13% DOE 승인 ▲ Cheniere Energy, 아시아 LNG 공급 위해 Corpus Christi 가동 가속화 ▲ Shell, 2026년 배후열기 가스 프로젝트 FD 검토	✓	▲ 삼성중공업, Purus Marine의 LNG선 1척 옵션 행사로 수주 ▲ Shell LNG 수요 전망: 422MTPA → 2040년 650~710MTPA로 최소 +54% 성장 전망 ▼ QatarEnergy,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LNG 시설 복구에 최대 5년 소요 ▼ QatarEnergy, 시설 피해 및 생산 중단, 선도의 20%가 공급으로 줄어듦 ▲ Seapeak, 노후 스티머 LNG선 매각 및 선대재편 ▲ 말리비시 MSC, 스티머 LNG선 3척 스크랩 결정
가스선		▲ VLCC 신조 투자 관심 증가, HD현대 KSS 해운 3척 + TMS 2척, 삼성중공업도 2척 선주 협상		
컨테이너선		▷ ONE, 동원그룹 부산 신항 터미널 자본 인수 및 전복터미널 1심 제정	✓	▲ HD현대중공업, HMM으로부터 파터 컨테이너선 10척 수주
탱커		▲ HD현대중공업, Gulf Energy Maritime로부터 50k-DWT급 PC선 6척 수주 ▲ SinoKor Maritime의 Suezmax 부문 진출 가능성 대두 ▲ 대원조선, 2주 연속 Suezmax 탱커 수주 및 2026년 목표 조기 달성 △ NAT, 노후 Suezmax 2척 고가 매각 및 1척이 실적 호조 전망	✓	▲ HD현대중공업, Hafnia의 MR PC선 4척 수주 ▲ MSC의 장금상선 자본 50% 인수 공화 ▲ Okeanos Eco Tankers의 VLCC 사양 2번째 높은 751,615달러/일 상락 실패 ▲ VLCC 운임 조정 앞두고, 변동, 그러나 주요 상락 취소 중
해상/대편스		▷ Ryan Lynch, Hanwha Shipping 대표지 사임 및 '회복' 단계로의 전환	?	▲ Eni, 6MTPA 신규 LNG 투입, 모잠비크와 남미 배후열기, 2개 추가 사업 진행 중 △ 트림프의 60일 기간 Jones Act 연해 조차에 대한 해운업계 비판
기타		▲ Golar LNG 전복터미널 등 가능성, 올해 LNG 1~2기 계약 기대		▼ 미국 USTR의 조선업 과잉 생산 조사 및 관세 부과 가능성, 한국과 일본도 포함 △ 인도-이란, 예치 운반선 인원 통행 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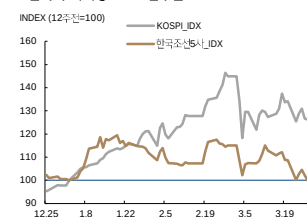
다올 선박

2026.03.29 [81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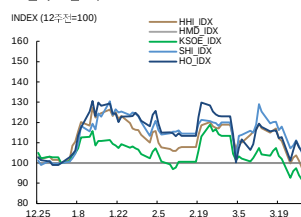
DAOL 다올투자증권

Peer Group 주가

▶ 한국 주식시장 vs. 조선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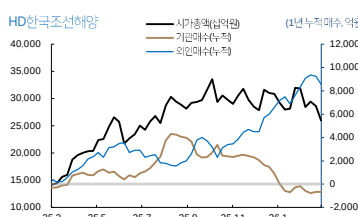


▶ 한국 조선5사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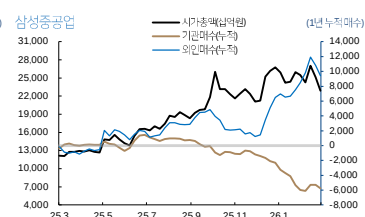


조선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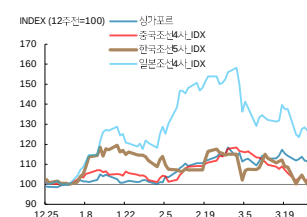
HD한국조선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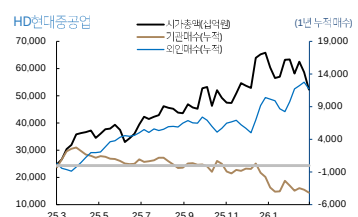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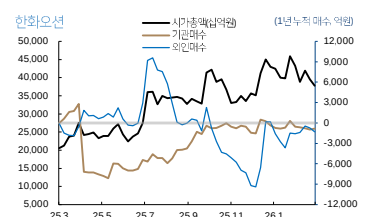
▶ 한/중/일/싱 조선주 주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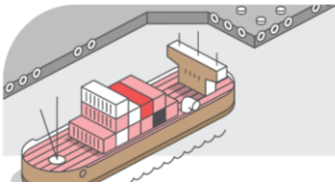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다올 선박

2026.03.29 [815호]

DAOL 다올투자증권

한국 조선업 수주와 수주설

▼ 신조 수주(외선, 전자공시 등)

▲ 삼성중공업, Purus Marine의 LNG선 1척 옵션 행사로 수주

- 아래의 LNG 섹션 참고

▲ HD현대중공업, HMM으로부터 피더 컨테이너선 10척 수주

- 아래의 컨테이너선 섹션 참고

▲ HD현대중공업, Hafnia의 MR PC선 4척 수주

- 아래의 탱커 섹션 참고

▲ Eni, 6MTPA 신규 FLNG 투입처. 모잠비크와 남미 베네수엘라. 2개 추가 사업 진행 중

- 아래의 해양/디펜스 섹션 참고

▼ Clarksons 신규 수주 입력 업데이트(한국)

①Hanwha Ocean→Unknown(Maran), LNG(174k-CBM) 2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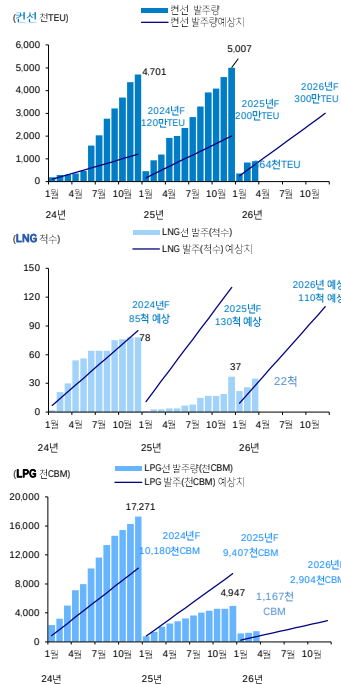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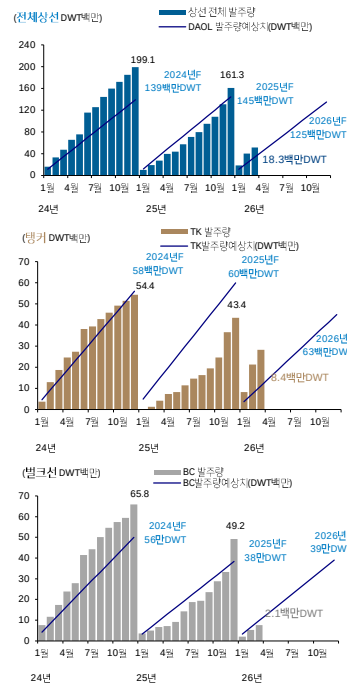
- 아래의 LNG 섹션 참조

②Hanwha Ocean→Unknown(Maran), TK(320k-DWT) 3척

- 아래의 LNG 섹션 참조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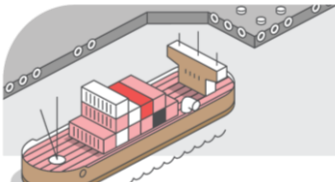
▶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



클래스 신조 발주: 한/중/일

주식: 클락스 입력 DATA 만 & 해양은 뉴스/공시 기준

조선사	수주일자	발주처	선종	선형	인도	척수
2026년 03월 2주						
대한민국	Samsung HI	26.03.10	Unknown	Unknown	TK	157k DWT
	HD Hyundai Samho	26.03.09	유럽	Unknown European	LPG	90k cu.m.
중국	CMHI (Jiangsu)	26.03.05	유럽	Arcadia Shipgmt	TK	157k DWT
	Jiangsu New YZJ	26.03.10	유럽	Jan De Nul Group	OTHERS	#VALUE!
	Zhoushan Changhong	26.03.10	중국	JJ Shipping	CONT	2k TEU
	COSCO HI (Zhoushan)	26.02.01	유럽	Costamare Shipping	CONT	3k TEU
	Penglai Jinglu SY	26.03.09	유럽	Knutson NYK	TK	154k DWT
	Hengli SB (Dalian)	26.02.01	유럽	Greenheart Mngt	CONT	3k TEU
	New Jiangzhou SB	26.03.06	유럽	Unknown European	TK	306k DWT
	Panjin Dajin Off	26.03.05	중국	Zhoushan Changhang	BULK	211k DWT
	CMi (Yangzhou)	26.02.25	유럽	Danaos Corp	BULK	211k DWT
	COOEC Qingdao	26.03.04	중국	Nanjing Yangyang	GASC	7k DWT
	Jiangmen Taixing SB	26.03.09	중국	CNOOC Limited	FPSO	#VALUE!
	Jiangxi Hongtong HI	26.03.12	중국	CREC Guangzhou	OFF-SUPP	1k GT
		26.01.22	중국	Zhejiang Fuqiang	BULK	20k DWT
			중국	Zhoushan Direct Ship	BULK	18k DWT
			중국	Wuhu Rongguang	CONT	1k TEU
일본	Imabari SB (Imabari)	26.03.02	유럽	d'Amico Intl Shpg	CONT	1k TEU
	Shimamami Shipyard	26.03.02	아시아	Uni-Asia Shpg (HK)	BULK	18k DWT
	Keihin Dock	26.01.01	Unknown	Unknown	OFF-기타	#VALUE!
2026년 03월 3주						
대한민국	DH Shipbuilding	26.03.16	Unknown	Unknown	TK	157k DWT
	HD Hyundai (Medium)	26.03.13	Unknown	Unknown	CONT	3k TEU
중국	Qingdao Beihai SB	26.02.11	한국	Pan Ocean	BULK	211k DWT
		26.03.13	한국	Pan Ocean	BULK	211k DWT
중국	Jiangsu New YZJ	26.03.11	유럽	d'Amico Intl Shpg	PTK	50k DWT
	New Times SB	26.02.01	유럽	Dynacom Tankers Mgmt	TK	159k DWT
	Jiangsu Runyang	25.12.01	중국	Hainan Zhongzheng	CONT	299k DWT
	CMJL (Nanjing)	26.03.12	중국	NASCO	BULK	4k TEU
	Chizhou Xinfeiyang	26.03.12	중국	Anhui Haiqing Shpg	CONT	64k DWT
	Jiangmen Suihang	26.01.01	Unknown	Unknown	OFF-기타	2027 2
	Zhejiang Xinxin Zhou	25.12.01	중국	Zhejiang Jiayue	PTK	12k DWT
	SOHO I&T SB	26.02.08	중국	Agricore Shipping	BULK	64k DWT
	Shandong Xinneng SB	26.03.14	중국	Dexinxiangyun Shpg	CONT	1k TEU
	Xiangshui Wanlong HI	26.01.01	중국	Unknown Chinese	BULK	211k DWT
	Zhoushan Yulong SY	26.03.01	중국	Zhongmei Ferry	FERRY	2027 2
	HHMC	26.01.01	중국	Unknown Chinese	OTHERS	2027 1
	Unknown Yard /Japan	26.03.12	Unknown	Seenergy Maritime	BULK	182k DWT
						2029 1
2026년 03월 4주						
대한민국	Samsung HI	26.03.20	Unknown	Unknown	LNG	174k cu.m.
	DH Shipbuilding	26.03.20	유럽	Purus	LNG	174k cu.m.
중국	Hanwha Ocean	26.03.24	Unknown	Unknown	TK	157k DWT
			Unknown	Unknown	LNG	174k cu.m.
	GSI Nansha	26.03.24	유럽	Caledonian Maritime	FERRY	0k Pass.
	Jiangmen Nanyang	26.03.13	Unknown	Unknown	BULK	65k DWT
			유럽	Suisse-Atlantique	BULK	65k DWT
		26.03.01	Unknown	Unknown	BULK	65k DWT
						2028 1
	Yantai CIMC Raffles	26.03.20	유럽	Bruton Ltd.	TK	319k DWT
	Fujian Mawei SB	26.03.20	아시아	T.S. Lines	CONT	3k TEU
	Hengli SB (Dalian)	26.03.14	유럽	Dynacom Tankers Mgmt	TK	306k DWT
	Panjin Dajin Off	26.03.17	유럽	Seatankers Mgmt	BULK	211k DWT
	CMi (Nanjing)	26.03.18	중국	Shenzhen LPG Shpg	LPG	8k cu.m.
	JMU isogo Imabari	26.01.01	Unknown	Unknown	RORO	2028 2
						2027-2028 2



선가, 실적, 생산능력

△ 수에즈막스 탱커 신조선이 상승, 벌크 중고선이 상승

신조선가지수는 -0.02p 하락한 182.08p를 기록. 그러나 수에즈막스 탱커가 88.5백만달러로 0.5백만달러 상승
중고선가지수도 203p로 제자리. 벌크 대다수 선종의 중고선가가 1.4~2.9% 상승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 당사 의견

▶ 그린십

△ Exmar 암모니아 D/F 올해 상반기에 2척 인도

Exmar는 올해 총 7척의 신조선을 인도받을 계획이며, 여기에는 향후 3개월 내 인도되는 암모니아 D/F 가스선 2척이 포함됨
해당 암모니아 연료 '플래그십' 신조선들은 2026년 상반기 내 인도될 예정이며,
암모니아 운송과 해상 연료 활용을 통해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지난 1월 Nantong CIMC SOE로부터 41k-CBM급 D/F LPG선을 인도받았으며,
현재 한국, 중국, 일본 조선소에서 역사상 가장 야심 찬 신조 프로그램을 수행 중
2025년 실적은 전년(181백만달러)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74.3백만달러를 기록했으며, 매출 또한 248.1백만달러로 감소
해운 부문 수익은 소폭 상승했으나, 인프라 및 지원 서비스 부문의 매출이 감소
중형 가스선 용량의 86%에 대해 2026년 잔여 기간 옵션 계약을 확보하며 높은 선대 이용률을 유지하고 있음
중동의 지리적 긴장 및 호르무즈 해협 폐쇄에 따른 즉각적인 운영 영향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
동사의 최근 사업은
네덜란드 Eemshaven의 FSRU 터미널 운영 연장 및 콜롬비아 프로젝트를 위한 FSU 공급사로 선정
0.5MTPA에서 5MTPA 규모의 다양한 부유식 LNG 프로젝트와 재기화 및 저장 ini셔티브를 개발 중
캐나다 서부 해안에 설치될 Cedar LNG의 FLNG 유닛인 Megugu의 해상 및 운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LNGc

▲ Celsius Tankers, 삼성중공업에 LNG선 2척 추가 발주하며 선대 26척으로 확대

Jeppe Jensen이 이끄는 Celsius Tankers가 삼성중공업에 LNG선(180k-CBM) 2척을 추가로 발주
2028년 9월 인도물의 신조선가는 256.8백만달러. 공사에서 오세아니아 선주로 명시
이번 수주로 Celsius Tankers의 LNG선대는 총 26척(운항 중 12척, 건조 중 14척)으로 확대
이는 당초 Jensen 회장이 목표로 했던 20척 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
이번에 발주한 신조선 2척은 이미 장기 옵션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나, 옵션처는 공개되지 않음
현재 운항 및 건조 중인 26척의 선박 모두가 장기 계약에 투입되어 있음
Celsius Tankers는 전체 26척 중 22척을 삼성중공업에 발주하며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 중
2023년에는 중국의 China Merchants Heavy Industry Jiangsu에 6척을 발주하며 건조처를 다변화한 바 있음
삼성중공업은 최근 며칠 사이 Purus Marine의 1척을 포함해 총 3척의 LNG선을 수주하며 수주 행진 중
2026년 현재까지 총 14척(LNG선 6척, 에탄올반선 2척, 컨테이너선 2척, 원유반선 4척)을 수주
누적 수주액은 2.9십억달러로, 연간 목표치인 13.9십억달러의 21%를 달성

▲ 한화오션, Maran Tankers로부터 VLCC 3척 및 LNG선 2척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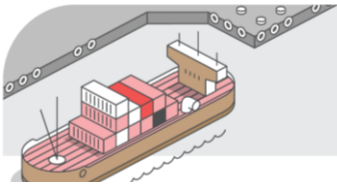
한화오션은 총 897.9백만달러 규모의 VLCC 3척 및 LNG선 2척 수주 계약을 체결
공시상 선주는 각각 오세아니아 및 아프리카 소재 선사로 기재되었으나, 업계 소식통은 Maria Angelicoussis가 이끄는 Maran Tankers가 실제 발주처라고 전함
VLCC 3척은 2029년 6월 29일 인도물의 신조선가가 130백만달러
LNG선 2척은 2029년 5월 15일 인도 예정으로 250백만달러
Maran Tankers는 최근 자사 VLCC Maran Arete를 Mercuria에 55,000달러/일 수준으로 5년간 장기 옵션 주는 등 활발한 영업을 이어가고 있음
한화오션은 그리스 최대 조선·방산 업체인 ONEX Shipyards & Technologies Group과 양해각서를 체결
양사는 그리스 해군 및 해안경비대의 잠수함 및 기타 함정 사업에서 독점적 파트너로서 협력하기로 합의

▽ 카타르 LNG 공급 중단에 따른 글로벌 시장의 대체 한계와 위기. Woodside 단기간 생산량 확대 불가

일본이 호주에 LNG 증산을 요청했으나, Woodside는 산업 특성상 단기간에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거절
카타르의 연간 생산량은 77MTPA에 달하며, 이는 Venture Global이 보유한 기존 시설과 건설 중인 시설 전체를 합친 규모(70MTPA)보다 큼
글로벌 LNG 공급의 2/3가 카타르, 미국, 호주에 집중되어 있어 지리적·지정학적 리스크가 매우 높은 구조
현재 전 세계 LNG 생산량의 상당 부분이 이미 장기 구매자와 계약되어 있어 즉각적인 항로 변경이 어려움
Venture Global은 2026년 포트폴리오의 69%, Woodside는 2026~2028년 물량의 75%가 이미 계약 완료된 상태
Santos CEO는 현물 가격(Spot price)에 노출된 구매자들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 막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으며, 장기 계약이 에너지 안보의 새로운 통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
미-이란 전쟁 시작 이후 글로벌 LNG 시장에서 약 90MTPA의 공급 능력이 상실. 이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상실된 규모와 맞먹는 수준
Glencore에 따르면 LNG 가격은 이전 대비 두 배로 뛰었으며, 높은 가격으로 인한 수요 파괴(Demand destruction)가 매일 발생하고 있음
LNG 시설은 매우 복잡한 산업 설비로, 카타르 내 공격받은 시설의 피해 조사와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
특히 시장이 기대했던 카타르의 대규모 확장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되는 것이 시장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
단기적으로 고객들은 재고 인출과 중기 계약 체결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상황
Shell은 이번 분쟁이 가스의 장기적 펀더멘털에 대해 고객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을 우려하고 있음
EQT는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가 시장의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히 구축될 때까지 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며,
이번 위기가 미 결판 안 미착공 프로젝트들의 계약 체결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 유럽,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 퇴출 확정. 유럽 에너지 지도의 재편

그리스 환경에너지부 장관 Stavros Papastavrou는 CERWeek 컨퍼런스에서 EU가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완전히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
2028년 1월 1일부터 EU 내에서 러시아산 가스는 완전히 퇴출될 것이며, 이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임을 강조
러시아산 가스의 빈자리는 미국산 LNG 수입 확대를 위한 동유럽 인프라 확충과 동지중해에서 발견된 신규 가스 자원으로 대체될 예정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는 단계적으로 러시아 의존도를 낮춰왔으며, 이를 위해 LNG 수입 및 재기화(Regasification) 시설을 신속히 확충하고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재정비
그리스는 러시아 파이프라인을 우회하여 유럽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신뢰할 수 있는 관문" 역할을 자처하고 있음
최근 그리스 의회는 Chevron과 Helleniq Energy에 4개의 해상 에너지 탐사 라이선스를 승인
정부 차원에서 ExxonMobil 및 Energean의 그리스 해역 내 탄화수소 탐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그리스가 키프로스, 이스라엘과 함께 주요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도약할 잠재력이 있음을 피력
동지중해의 공급 확대와 미국의 신규 LNG 공급 능력이 결합되면서 유럽의 에너지 지도가 근본적으로 재편
EU 집행위원회와 동지중해 가스 포럼(EMGF)은 산업 발전에 맞춘 규제 정비와 LNG 수입 인프라에 대한 우호적인 투자 환경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



▲ 미국 LNG 인프라 승인 절차 간소화 추진, 미국 AI 데이터 센터의 95%가 가스에 의존

FERC 의장 Laura Swett는 LNG 터미널 및 파이프라인을 포함한 가스 인프라의 허가 승인을 책임감 있게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
모든 유형의 인프라, 특히 파이프라인 확충이 절실하며 미국산 LNG가 전 세계의 동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언급
기존 승인된 프로젝트가 전체 재승인 절차 없이 계획을 확장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괄 증명서(blanket certificates)' 도입 가능성을 검토 중
프로젝트를 가능한 한 빨리 검토하되, 수년간의 비용 소모적인 소송으로 인해 법원에서 뒤집히지 않도록 '견고한' 승인을 내리는 것이 중요
법적 분쟁으로 인해 작업이 수년씩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성과 법적 안정성 사이의 엄격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
지난 1년간 FERC는 환경 영향 평가 기간을 70일 단축했으며, 향후 이 기간을 더 줄일 수 있는 역사적인 시점에 있다고 밝힘
대규모 AI 프로그램을 위한 데이터 센터 개발자(Hyperscalers)들과의 논의 결과, 이들의 에너지 공급 계획 중 95%에 가스가 포함되어 있음
배터리나 기존 발전원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단기적인 전력 수요 해결책은 천연가스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언급

▲ Venture Global, 중동 LNG 공급 중단 공략, Plaquemines 수출량 +13% DOE 승인

Venture Global은 글로벌 트레이딩 하우스인 Vitol과 2026년부터 5년간 연간 1.5MTPA 규모의 LNG를 공급하는 단기 계약을 체결
Mike Sabel CEO는 유연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국산 LNG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번 계약이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중요한 단계라고 밝힘
최근 29MTPA 규모의 CP2 프로젝트 확장 단계에 대한 최종투자결정(FID)을 내림
미국 에너지부(DOE)로부터 Plaquemines LNG 플랜트의 수출량을 13% 늘리는 승인을 획득
현재 미국 걸프만 지역의 3개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 건설 또는 개발 중인 LNG 용량이 100MTPA를 상회한다고 발표
카타르(QatarEnergy) LNG 생산 시설(train) 2곳의 심각한 손상으로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 복구에 3~5년이 소요되며 연간 생산량의 17%가 차질을 빚고 있음
아랍에미리트(Adnoc Gas)도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중단에 대응해 생산량을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비상 계획을 가동 중
현재 전 세계 LNG 생산량의 약 5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 폐쇄와 카타르의 생산 중단으로 인해 묶여 있는 상태
공급 부족 우려로 인해 Venture Global의 주가는 일주일 만에 20% 이상 급등했으며, 경쟁사인 Cheniere Energy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
회사는 "Unstoppable Energy"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배우 빌리 밥 손턴(Billy Bob Thornton)이 참여한 대규모 광고 캠페인을 시작하며 미국산 LNG의 가격 경쟁력과 신속한 공급 능력을 홍보하고

▲ Cheniere Energy, 아시아 LNG 공급 위해 Corpus Christi T5 가동 가속화

Cheniere Energy는 이란 전쟁으로 공급 차질을 겪는 아시아 시장을 돕기 위해 생산량 증대를 추진 중이나, 현재 터미널은 이미 '최대 용량'으로 가동 중
CEO는 Bechtel과 협력하여 텍사스 Corpus Christi LNG 터미널 확장 프로젝트의 5번째 train 가동을 이번 주 금요일경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힘
공급 확대를 위해 설비 유지보수 일정 연기를 검토 중이나, 안전과 신뢰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유지
미국 걸프만에서 아시아까지는 약 28일의 항해 기간이 소요되며 즉각적인 공급 해소는 어려움
카타르의 공급 중단 여파로 가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현재 '수요 보존 조치'를 시행 중
특히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신흥국들이 가격 상승과 물량 부족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
아시아의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현재 LNG 물량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유럽 시장에 머물러 있음
Cheniere Energy는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장기 계약 체결을 선호하는 기존 전력을 고수하며, 단 한 번도 주요 고객(Foundation customer)의 물량을 놓친 적이 없음을 강조
최근의 에너지 위기를 통해 고객들이 특정 국가(러시아나 미국 등)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급처를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분석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Cheniere Energy는 5년 동안 매일 수익을 기록하며 풀가동 상태를 유지

▲ TotalEnergies 회장, 전 세계적 LNG 용량 확대 및 유럽의 투자 지원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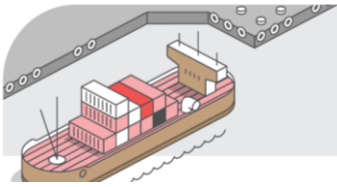
Patrick Pouyanné 회장은 현재의 중동 분쟁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계통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
당시의 위기는 유럽 국한된 지역적 문제였으나,
현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전 세계 석유 및 LNG 물동량의 약 20%가 고립된 글로벌 위기임을 강조
봉쇄가 지속될 경우 에너지 가격이 2022년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경고
실제로 유럽의 가스 벤치마크인 TTF 가격은 분쟁 시작 후 한 달 만에 두 배 이상 급등
카타르 LNG 의존도가 10% 미만인 유럽조차 '대서양의 LNG 공백'에 대한 공포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음
유럽이 저렴한 LNG를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신규 LNG 용량 증설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
특히 아프리카 등지에서 추진 중인 자사의 LNG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를 꺼리는 일부 유럽 국가들의 태도를 비판하며, 장기적인 공급 안정성을 위한 투자 확대를 촉구
TotalEnergies는 미국 정부와 협의하여 기존에 확보했던 해상 풍력 사업권 2곳을 포기
대신 해당 자금 928백만달러(약 9.28억 달러) 전액을 미국 내 천연가스 및 LNG 프로젝트에 재투자하기로 결정
회사는 2025년 기준 18MTPA의 미국산 LNG를 처리한 최대 수출업체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음

▲ 이란 전쟁 에너지 충격: 호주-싱가포르 노선 제품선 및 LNG선 운임 급등 전망

이란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호주와 싱가포르는 국내 에너지 공급 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협력 방식은 호주가 싱가포르에 LNG를 공급하고, 싱가포르는 호주에 디젤, 가솔린 등 정제된 석유제품을 다시 수출하는 형태
아시아 정유소로의 원유 유입이 줄어들면서 호주향 석유제품 출하가 차질을 빚음. 최근 호주향 MR 탱커 6척의 항해가 취소됨
호주는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싱가포르(항해 10~20일) 대신 거리가 먼 미 걸프만(USGC, 항해 30~40일)에서 제품유를 도입하기 시작
호주가 공급 확보를 위해 미 걸프만급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어, 싱가포르-호주 노선의 MR 탱커 운임이 6백만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제기
싱가포르는 전력 생산의 90%를 천연가스에 의존하나, 카타르의 공급 중단으로 인해 호주산 LNG 수입 비중을 확대 중
현재 호주산 LNG는 싱가포르 수요의 약 40%(2.6MTPA 이상)를 차지
호주-싱가포르 노선에 투입되는 174k-CBM급 LNG선 스팟 운임은 기존 30,000달러/일 이하에서 현재 약 3배 수준으로 급등
Baltic Exchange 데이터에 따르면 유사 노선(호주-일본)의 174k-CBM급 선박 운임은 138,000달러/일 수준을 기록 중
Sparta Commodities는 호주가 농업 등 내수용 연료 확보를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물량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분석
Poten & Partners는 카타르의 공급 중단 여파와 선박량 부족(Tonnage tightness)으로 인해 LNG 운임 강세와 시장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Shell, 2026년 베네수엘라 가스 프로젝트 FID 검토

Shell의 Wael Sawan CEO는 베네수엘라 가스 프로젝트에 대해 올해 말까지 1~2개의 최종투자결정(FID)을 내릴 수 있다고 언급
지난 1월 정권 교체 이후 국제 운영사들에 대한 재무 조건 개선 등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절한 법적·재정적 틀이 마련될 경우 신속한 추진이 가능
원유 개발이 장기적인 과제인 반면, 가스 프로젝트는 2~3년 내의 단기적 타임라인으로 조기 수익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베네수엘라 해상에 위치한 Dragon 가스전(추정 매장량 4.2조 입방피트)이 가스 전략의 핵심
초기 3개의 시추공과 16km 해상 파이프라인을 통해 트리니다드 토바고 내 Shell의 액화 및 수출 인프라와 연결할 계획
미국 정부는 올해 3월 Shell과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2026년까지 해당 가스선 개발 협상 및 개발을 허가하는 라이선스를 승인함
단, 베네수엘라 국가 기관에 대한 직접 지불 금지 조건
Shell은 공급망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LNG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추진 중임
특히 LNG Canada 프로젝트는 기존 흐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가격 역학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공급원이 될 것으로 평가
Vepica, KBR, Baker Hughes 등과의 기술 및 상업적 계약을 통해 베네수엘라 전역의 여러 석유 및 가스 유망 광구를 공략할 예정임



▲ 중동 위기 속에서도 미국 LNG 내수 가격은 3달러/MMBtu로 안정적

지난달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며 호르무즈 해협 폐쇄 및 LNG 공급 부족 우려가 확산
전쟁 시작 전과 비교해 유럽과 아시아의 가스 가격은 7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 내수 가스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음
Caturus Energy의 CEO David Lawler는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미국 가스 가격이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LNG 수출 확대가 내수 가격 폭등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주장
북미 지표인 Henry Hub 가격은 전쟁 초기 상승세를 보였으나 현재 3달러/MMBtu 범위에서 거래되며 한 달 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 중
반면 유럽의 지표인 TTF 가격은 2월 28일 첫 공격 직후 2배 가까이 급등했으며, 현재 값등 이전보다 70% 높은 55유로(63.7달러)/MWh 수준
북아시아 LNG 지표인 JKM(Japan-Korea Marker) 또한 분쟁 이전 대비 약 90% 상승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일일 150억 입방피트 이상의 액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Aethon Energy 사장 Gordon Huddleston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법치와 거버넌스가 안정적인 미국 가스 자산에 대한 국제 구매자들의 수요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분석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의 전기로 상승 원인이 LNG 수출이 아닌, AI 기술 발전에 따른 데이터 센터 건설 붐 때문이라고 지적
미국 생산자들은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낮추려는 유럽형 물량을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아시아 시장에서도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Venture Global, Calcasieu Pass 인도 지연 중재건 합의 협상 진행

Venture Global의 Mike Sabel CEO는 Calcasieu Pass 터미널의 장기 계약 물량 인도 지연으로 발생한 다수의 중재 소송건에 대해 고객사들과 합의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힘
이미 지난 9월 한 고객사와 200백만달러 규모의 합의를 완료했으나, 해당 업체명은 공개하지 않음
Shell(8월)과 Repsol(1월)을 상대로 한 중재에서 승소한 이후, 추가적인 합의 도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
BP는 작년 10월 중재에서 승소하며 Venture Global을 상대로 60억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 중. 배상액 확정을 위한 심리 예정
Shell은 중재 패소 후 뉴욕주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올해 3월 2일 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Venture Global의 손을 들어줌
이 외에도 Galp, Orlen, Edison 등이 Venture Global을 상대로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소송을 유지하고 있음
논란의 핵심은 상업 운전일(COD) 지연
장기 계약 고객들은 Venture Global이 설비 문제를 핑계로 상업 운전 시작일(COD)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그 사이 물량을 현물 시장(Spot market)에 고가로 팔아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
Venture Global은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기술적 문제로 인해 장기 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COD 도달이 늦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소송건들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
Sabel CEO는 승소 기록을 바탕으로 더 많은 고객사가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이후 보도는 이탈리아 유틸리티 기업 Edison, Calcasieu Pass 터미널 관련 Venture Global 대상 중재 소송 취하 합의로 이어짐
이번 합의로 Calcasieu Pass 관련 중재 사건 중 4번째 사례가 해결

▲ Inpex, 호주 Beetaloo 분지 셰일가스 지분 인수 및 Ichthys LNG 확장 전망

일본 Inpex는 호주 노던 테리토리(NT) Beetaloo 분지의 셰일가스 광구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Daly Waters Energy(DWE)와 팜인(Farm-in) 계약을 체결
Beetaloo 분지는 500조 입방피트 이상의 가스 자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셰일가스 매장지 중 하나로, 미국의 Marcellus 셰일과 견줄 만한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
Inpex 호주 법인은 First Strategic Development Area(FSDA) 북부 및 남부 지분 11.25%와 Beetaloo Central Development(BCD) 구역 지분 20%를 인수하기로 합의함
이번 계약에는 BCD 지분을 43.75%까지 확대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약 75,000에이커의 추가 면적 확보가 가능
Inpex는 비운영권자(Non-operator)로서 Shenandoah South 셰일가스 파일럿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노던 테리토리 지역에 가스를 즉각 공급할 예정
해당 파일럿 프로젝트는 2026년 3분기 중 노던 테리토리 정부와 체결한 바인딩 계약에 따라 일일 40테라줄(TJ) 규모의 첫 상업 판매를 시작할 계획
Inpex는 확보된 가스를 Darwin에 위치한 Ichthys LNG 프로젝트에 공급하고, 향후 온쇼어 액화 플랜트의 3번째 LNG train 확장까지 고려하고 있음
이번 투자는 Beetaloo 분지가 주요 가스 공급원으로서 가치가 높다는 점을 반영

▶ 베트남-Novatek 장기 LNG 공급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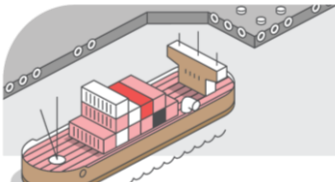
베트남 Prime Minister Pham Minh Chinh은 Novatek 본사를 방문하여 4개 발전소 프로젝트 및 관련 LNG 시설에 대한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
대상 프로젝트는 Hai Phong, Quang Ninh, Nghi Son, Ca Na 지역에 위치하며, 총 9,300MW 규모의 LNG 수입 터미널과 연계 발전소를 건설하여 2030년부터 가동할 계획
Novatek 회장 Leonid Mikhelson은 베트남의 익명 고객과 러시아산 LNG 공급을 위한 1번째 HoA를 체결했다고 밝힘
베트남은 석탄에서 가스 발전으로의 전환을 통해 LNG 수입 수요를 대폭 늘릴 예정
수정된 Power Development Plan 8에 따라 2030년까지 LNG 발전 용량을 22,524MW(전체 전력 MIX의 9.5~12.3%)로 확대할 방침
4개 발전소 가동을 위해 8MTPA의 LNG 수입이 필요
An Giang 성 Nam Du 섬에 LNG 수입 터미널을 건설하는 제안에 Novatek의 참여를 요청
Novatek은 현재 연간 약 20MTPA 생산 능력을 갖춘 Yamal LNG와 Arctic LNG 2 프로젝트를 운영 중
Yamal LNG는 제재 대상이 아니므로 베트남으로의 인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 유럽의 러시아 가스 수입 중단에 따라 아시아로 공급처를 전환할 계획
미국 제재를 받는 Arctic LNG 2는 2개 train을 통해 13MTPA 이상의 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제재로 인해 현재 풀 가동이 어려운 상태

▲ 캐나다 서부해안 LNG, 아시아 시장을 목표로 진행 형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은 차기 북미 LNG 수출 용량의 대대적인 확장이 미국이 아닌 캐나다에서 일어날 것으로 전망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로 인해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 다변화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진 상태
미국 걸프 연안 프로젝트보다 아시아 지역까지의 항해 거리가 짧다는 지리적 이점
컬럼비아(BC) 주 정부에 따르면 도코까지 8일, 서울 10일, 상하이까지 11일이면 인도 가능
과거 에너지 수출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원주민 그룹과의 갈등을 '협력 및 지분 참여' 구조로 전환하여 경쟁 우위로 확보
현재 모든 LNG 프로젝트는 원주민 커뮤니티가 소유주 또는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음
이러한 정치적 기류 변화가 파이프라인, 포트 확장, 신규 액화 설비 승인의 길을 열어줌
주요 LNG 및 석유 프로젝트는
LNG Canada: Shell, Petronas, PetroChina, 한국가스공사, Mitsubishi Corp의 합작 투자사로, 지난해 7월 가동 이후 올해 2월 50번째 화물을 출하
Woodfibre LNG: 현재 건설 공정을 50%를 초과
Cedar LNG: 현재 건설 단계에 진입
Ksi Lisims LNG: 지난해 9월 환경 규제 기관으로부터 사업 진행 승인을 받음
Trans Mountain Pipeline: 용량을 1.2Mbd(백만배럴/일)로 확장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 중. 확장 물량의 상당 부분은 아시아 시장을 타겟으로 함
현재 서부 해안의 LNG 생산 용량은 12MTPA 수준이나, 건설 중이거나 허가된 물량을 포함하면 약 50MTPA에 달함
캐나다는 이를 통해 아시아 동맹국들의 에너지 안보를 지원하는 '에너지 슈퍼파워'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힘

▽ Darwin LNG 최종 완공 2Q26으로 연기. Barossa FPSO 기술 결함

Santos는 호주 Northern Territory에 위치한 Darwin LNG 프로젝트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
이번 중단은 Barossa 가스전에 투입된 FPSO의 기술적 결함(컴프레서 가스 씰 교체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
가동 재개까지는 "수 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타임라인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해당 프로젝트의 핵심 설비는 BW Offshore의 FPSO인 BW Opal. 일일 850MMcf의 가스와 11,000배럴의 콘덴세이트를 처리
BW Opal은 2025년 9월에 1번째 가스 생산을 달성. 현재 해상 시운전 및 스타트업 단계에 있음
BW Offshore는 설비의 최종 완공(Practical Completion) 목표를 기존 2026년 1분기에서 2분기로 약간 연기
Barossa 프로젝트의 총 예산은 4.5십억달러 규모이며, Santos(지분 50%), PRISM Energy(37.5%), JERA(12.5%)가 파트너로 참여
Darwin LNG는 연간 3.7MTPA의 액화 용량을 보유한 프로젝트
중동 분쟁으로 인해 QatarEnergy가 생산을 중단하는 등 글로벌 LNG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번 섀다운이 발생
호주는 현재 약 88MTPA의 LNG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 일본, 중국 등 에너지 수요가 많은 북아시아 국가들의 핵심 공급원



▽ 사이클론 Narelle 영향으로 인한 Woodside Energy의 NWS 프로젝트 가동 중단

Woodside Energy는 서호주를 강타한 사이클론 Narelle의 영향으로 North West Shelf(NWS) LNG 프로젝트의 가동을 전격 중단
현재 NWS 시설은 총 4개의 train을 운영 중이며, 14.3MTPA 생산 능력
기존 5개의 train 중 2번 train은 가스 공급량 감소로 인해 지난해 이미 가동이 중단되어 전체 용량이 16.9MTPA에서 축소된 상태
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LNG 생산량의 약 20%가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Santos가 Darwin LNG 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지 며칠 만에 발생
호주는 다양한 가스 자원을 활용하여 총 88MTPA 수준의 LNG 생산능력
현재 NWS 프로젝트의 LNG train 4기, 가스터빈 발전기, 내수용 가스 플랜트가 모두 가동 중단된 상태
Woodside 대변인은 인력과 자산의 안전을 위해 해상 인력을 안전하게 철수시켰으며 사이클론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힘
가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Woodside는 서호주 포트폴리오를 통해 기존 고객들에게 내수용 가스를 계속 공급하고 있음
회사는 향후 생산 및 자산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경우 공시 의무에 따라 시장에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할 예정

▽ 호주 사이클론 'Narelle'에 의한 추가 생산 차질

대형 열대성 사이클론 'Narelle'이 호주 북부와 서부를 강타하면서 Chevron이 운영하는 주요 LNG 프로젝트들이 생산 중단 및 차질을 겪음
이번 사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QatarEnergy 등 주요 생산국들의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발생하여 아시아 LNG 스팟 가격 상승을 압박하고 있음
아시아 LNG 스팟 가격은 2월 28일 중동 교전 시작 이후 4주 만에 2배로 급등
Santos가 운영하는 1) Darwin LNG와 2) Woodside Energy가 운영하는 NWS 프로젝트도 운영이 중단된 상태인 가운데
Chevron 운영 프로젝트도 피해 발생
3) Wheatstone 프로젝트: 3월 26일 낮 12시경 해상 플랫폼에서 정전이 발생하여 연간 8.9MTPA 규모의 LNG 및 내수용 가스 생산이 전면 중단됨
4) Gorgon 프로젝트: 3월 26일 오후 3시경 Barrow Island 시설 내 3개의 train(각 5.2MTPA) 중 1개 train이 가동 중단되었으나, 나머지 2개 train과 내수용 시설은 운영 중
안전을 위해 Wheatstone 플랫폼의 모든 인력은 사전 대피했으며, 화요일 오후부터 퍼스 사무소에서 원격으로 제어 중
호주의 전체 LNG 명목 생산 능력은 약 88MTPA에 달함
사이클론 'Narelle'은 토요일 오전 카테고리 2로 약화되었으나, 피해 시설들의 생산 재개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고립된 LNG선 GasLog Skagen, 바레인에서 화물 하역 후 공선 상태 전환

GasLog가 관리하는 155k-CBM급 LNG선 GasLog Skagen호(2013년 건조)가 폐쇄된 호르무즈 해협 서쪽에 고립되어 있다가 최근 바레인에서 화물을 하역
Kpler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월요일 바레인 히드(Hidd) 소재 LNG 수입 터미널에 도착하여 하역을 마친 후 어제 공선(Ballast) 상태로 출항
이 선박은 Centrica에 운선 중이며,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직전인 2월 26일 카타르 라스라판 터미널에서 화물을 선적했으나 해협 봉쇄로 고립된 상태였음
바레인의 Bapco Energies는 일일 800-MMCF 처리 능력을 갖춘 계절별 LNG 수입 터미널을 운영 중
해당 터미널은 173.4k-CBM급 FSU Seapeak Bahrain호(2018년 건조)를 통해 운영되며, 해당 FSU는 여름철 피크 수요에 대비해 지난 2월 중순 해협을 통과하여 복귀한 바 있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운영 통제권을 주장하며, 미국-이스라엘 및 그 우방국 선박의 통행을 차단하고 있음. 그 외 국가에는 개방되어 있다고 주장
현재 해협 서쪽(컬프만 내부)에는 GasLog Skagen을 제외하고도 여전히 12척의 LNG선이 화물을 적재한 채 고립되어 있음
해당 지역에는 현재 공선 상태의 LNG선 3척, FSRU 2척, FSU 1척, 그리고 샤르자(Sharjah)에서 개조 중인 LNG선 1척 등이 머물고 있음
교전 시작 이후 현재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LNG선은 단 한 척도 없는 것으로 확인
바레인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보호를 위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할 것을 제안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음

△ Flex LNG, 에너지 슈퍼메이저와 174k-CBM급 LNG선 2년 용선 계약 체결

John Fredriksen이 이끄는 Flex LNG가 글로벌 에너지 '슈퍼메이저'와 LNG선 1척을, 2년 용선(Time Charter) 계약 체결
대상 선박은 Flex Aurora (2020년 건조, 174k-CBM, X-DF 추진 방식)
계약에는 2년 단위로 총 3회의 연장 옵션이 포함되어 있어, 옵션 모두 행사 시 해당 선박은 2034년까지 확정 운영
Flex Aurora는 이번 달 미국 Cheniere Energy와의 3.5년 용선 계약이 종료된 직후, 공백 없이 즉시 새로운 일감을 확보하는 데 성공
이번 계약으로 Flex LNG의 최소 계약 잔고는 55년으로 늘어났으며, 모든 옵션 행사 시 최대 82년까지 확대
현재 스팟 시장(Spot market)에는 Flex Artemis(2020년 건조)와 Flex Volunteer(2021년 건조) 2척이 투입되어 운용 중
2월 28일 시작된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LNG 운임이 급등하고 있으며, Marius Foss CEO는 현재의 운임 시장 모멘텀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힘
Fearnleys에 따르면 3월 초 이후 1년 기간 용선 운임은 약 90,000달러/일 수준을 기록 중
Flex Aurora는 현대식 2스트로크(Two-stroke) 추진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시장 평균보다 높은 운임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
최근 BP로부터 Flex Courageous와 Flex Resolute 2척에 대한 용선 연장 계약을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다지고 있음
다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 가스선/암모니아운반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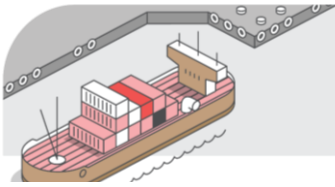
▲ VLGC 신조 투자 관심 증가. HD현대는 KSS 해운 3척 + TMS 2척, 삼성중공업도 2곳 선주 협상

최근 시장의 혼조세 속에서도 VLGC 신조선에 대한 선주들의 관심이 눈에 띄게 상승 중
한국 조선소의 슬롯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며 여러 선사가 발주 후보로 거론
주요 프로젝트는
1) KSS해운: HD현대그룹 계열 조선소에 90k-CBM급 VLGC 3척에 대한 LoI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2) TMS Cardiff Gas: 동일한 조선소와 2척의 LoI 체결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공식 답변은 거부
3) 삼성중공업: 추가로 2곳의 선주와 VLGC 건조 슬롯 확보를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
논의 중인 선박은 파나마 운하 통과가 가능한 90k-CBM급 파나마 선평(Panamax Beam) 사양
현재 VLGC 신조선가는 척당 약 110백만달러 수준에서 형성
현재 VLGC 잔고는 106척으로 전 세계 선대의 27%를 초과하는 수준이라 브로커들 사이에서 과잉 공급 우려가 존재
2026년에는 올해 26척, 2027년 약 50척의 인도가 예정되어 있어 추가 발주가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28년 초기 인도 슬롯을 노린 현금 보유 선주들의 투자가 이어짐
중동 분쟁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성이 오히려 VLGC 투기적 수요를 자극
미국 LNG 프로젝트 승인에 따른 LPG 생산량 증대와 아시아향 수출 확대에 의한 톤-마일 증가 기대감이 반영
이란 제재 해제 시 노후화된 Shadow Fleet이 퇴출되면서 신규 선박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

▶ 컨테이너선

▷ ONE, 동원그룹 부산 신항 터미널 지분 인수 및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일본의 ONE이 동원그룹과 장기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DGT)의 지분을 인수
ONE은 이번 투자를 "간접적이지만 의미 있는 수준의 지분 확보"라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부산항을 환적 허브 및 로컬 게이트웨이로 적극 활용할 계획
동원글로벌터미널은 한국 최초의 완전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로, 자율주행 이송장비(AGV) 등을 도입하여 운영 중
최종 개발 단계가 완료되면 5개의 본선 선박과 1개의 피더 선석을 갖추게 되며, 연간 처리 능력은 4.5M-TEU를 초과할 전망
세계 6위 컨테이너 선사인 ONE은 HMM, Yang Ming과 함께 'Premier Alliance'의 멤버로 활동 중
이번 투자를 통해 주요 항만 지역의 선복량을 직접 확보함으로써 아시아 및 글로벌 네트워크 내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연결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됨
동원그룹은 2023년 HMM 인수 시도에 실패했으나, 작년 말부터 2차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동원그룹은 HMM 인수를 위해 약 6.8십억달러 규모의 입찰을 검토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



▶ 탱커

▲ HD현대중공업, Gulf Energy Maritime로부터 50k-DWT급 PC선 6척 수주

두바이의 Gulf Energy Maritime(GEM)이 HD현대중공업에 50k-DWT급 PC선 6척을 발주
이번 계약은 모두 확정분이며, 3척은 한국 본사에서, 나머지 3척은 HD현대베트남조선에서 건조될 예정
해당 선박들은 고사양으로 설계되었으며, 2028년 인도무로이 신조선가는 52백만달러로 알려졌다
이번 발주는 선대 교체 및 확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됨
GEM은 현재 11척의 MR 탱커를 운영 중이나, 이 중 3척이 향후 3년 내 선행 20년에 도달할 예정
GEM의 회장인 Amir Maghami는 컨테이너선사인 Global Feeder Shipping의 회장이자 Abu Dhabi Ports (AD Ports)의 해운 부문 CEO를 겸임하고 있음
GEM은 Emirates National Oil Co (ENOC), 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 (IPIC), Oman Oil Co의 합작 투자로 2004년 설립
2년 전 한국의 K조선에 발주한 73.5k-DWT급 PC선 4척과 MR 탱커 2척이 올해 중 인도될 예정
또한 작년에는 Global Feeder Shipping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MR 탱커 4척을 인도받아 선대를 보강

▲ Sinokor Maritime의 Suezmax 부문 진출 가능성 대두

최근 3개월간 VLCC 시장에서 보여준 공격적인 행보를 Suezmax 섹터에서도 재현할 것이라는 Fearnleys의 분석 제기
장가현 회장이 이끄는 Sinokor Maritime이 최대 15척의 Suezmax 거래를 검토 중이라는 소문 확산
MSC의 창립자 Gianluigi Aponte가 MSC의 자회사 SAS Shipping Agencies Services를 통해 Sinokor Maritime의 자본 50% 인수계획이 키프로스 공사를 통해 확인됨
Sinokor Maritime이 이미 5척의 Suezmax를 매입했으며, 추가로 10척을 더 확보했다는 보고가 선박 브로커들 사이에서 공유됨
다만, Okeanis Eco Tankers의 선박 인수 루머는 근거 없는 것으로 파악
Suezmax 시장은 파편화된 특성상 독점이 어렵지만, 올해 초 VLCC 150척을 확보하며 시장을 장악한 두 회사의 공격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지난해 말부터 Sinokor Maritime과 Aponte는 중고선 매입 및 용선을 통해 주류 VLCC 선대의 약 25%에 해당하는 규모를 확보함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VLCC 운임이 200,000달러/일 이상으로 폭등하며 시장이 과열
시장에서는 Sinokor Maritime이 운임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선박량을 조절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
☞ 대한조선의 2029 슬롯도 좋겠습니다.

▲ 대한조선, 2주 연속 Suezmax 탱커 수주 및 2026년 목표 조기 달성

대한조선은 2주 연속으로 Suezmax 탱커 수주에 성공하며, 2026년 시작 이후 총 10척을 수주
아프리카 소재 선주로 공시된 그리스 선주 Victor Restis가 이끄는 Golden Energy Management로부터
2029년 6월 인도물 Suezmax 탱커 1척을 89.2백만달러에 수주. 1월 발주에 딸린 옵션 행사
이번 계약으로 Golden Energy가 지난 3년간 DH조선에 발주한 Suezmax 신조선은 총 5척으로 늘어남
대한조선은 1분기가 끝나기 전 연간 수주 목표의 82% 이상을 달성
현재 총 34척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3.5년 치의 안정적인 작업 물량에 해당
지난주에도 오세아니아 소재 선주로부터 2029년 10월 인도물 Suezmax 탱커 1척을 88.3백만달러에 수주함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해 안전을 위한 우회 항로 이용이 늘어나면서 장거리 운송에 적합한 Suezmax 탱커 수요가 증가
Clarksons에 따르면 현재 Suezmax 잔고는 기존 선대의 약 25%에 달하며, 이는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임

▷ SK해운, 선가 상승기에 VLCC 2척 및 MR 탱커 1척 매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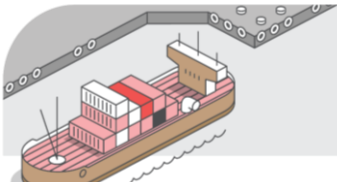
SK해운의 대주주인 한앤컴퍼니가 선가 상승을 활용해 탱커 3척의 매각을 진행 중. 2012년, 2013년 건조 VLCC와 2019년 건조 50k-DWT
일할 마감 시한은 한국 시간 기준 2026년 3월 26일 오전 10시임
VesselsValue 기준 가치는 VLCC 2척은 각 93백만달러 이상, Pro Onyx는 45.84백만달러로 평가
과거 발주가 대비 Pro Onyx는 38백만달러에 발주되어 상당한 자산 가치 상승이 이루어짐
VLCC 1척은 옵션 계약 중이며, 옵션 행사 시 2028년 7월까지 운항 가능하고
또 다른 VLCC는 계열사와 계약 중이며, 옵션 포함 시 2027년 5월까지 계약 연장 가능
MR도 Koch Industries 계열사와 계약 중이며, 옵션 포함 시 2027년 5월까지 계약 연장 가능
한앤컴퍼니는 지난달 판오선에 VLCC 10척을 약 676백만달러(약 9,737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완료
한앤컴퍼니 인수 이후 SK해운은 스팟 시장 대신 장기 계약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
영업이익이 인수 당시 73.3십억 원에서 2024년 395.7십억 원으로 5배 이상 급증하는 등 경영 실적이 크게 개선
작년 HMM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SK해운 매각을 추진했으나 최종 성사되지 않음
이번 매각은 SSV를 포함한 특정 선박 브로커사들과 협력하여 진행 중

△ DIS, 2012년 건조 MR 탱커 고가 매각 및 선대 현대화 가속

이탈리아의 d'Amico International Shipping (DIS)이 자사 보유 선박 중 가장 오래된 MR 탱커 1척을 성공적으로 매각. 2012년 한국 건조, 51.7k-DWT급 PC선
매각 대금은 27.6백만달러로 VesselsValue 평가액인 26.45백만달러보다 비싸게 거래
Carlos di Mottola CEO는 역사적 평균 및 2025년 말 브로커 평가액 대비 매우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고 밝힘
이는 현재의 강력한 운임 시장과 PC선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반영된 결과
DIS는 현재 Handysize부터 LR1까지 총 27척의 제품 운반선을 운영
이번 매각 후 DIS가 보유한 Non-Eco 선박은 단 1척만 남게 됨
최근 Jiangsu New Yangzi Shipbuilding에 MR2 탱커 옵션 2척을 행사하여 해당 선종의 수주 잔고를 4척으로 늘림
현재 전체 수주 잔고는 2027년 인도 예정인 LR1 4척을 포함해 총 10척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과 전쟁 리스크로 인해 탱커 중고선 매매 시장은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태
최근 거래는 주로 MR급 이하 소형 탱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유 운반선 거래는 매우 드물
매수 희망자는 존재하나 불확실성으로 인해 판매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하며 거래 흐름이 제halt되고 있음

△ NAT, 노후 Suezmax 2척 고가 매각 및 1분기 실적 호조 전망

NAT는 자사 선대 중 가장 오래된 2005년 건조 Suezmax 탱커 2척을 각각 40백만달러에 매각
이번 매각가는 시장 평가액인 35.2~35.7백만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적당 상당한 프리미엄을 확보
이번 매각으로 NAT의 최고령 선박은 2010년 건조된 Nordic Cross와 Nordic Vega가 됨
Herbjorn Hansson 회장은 선대 교체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최근 한국 대한조선에 2028년 인도 예정인 탱커 2척을 발주한 바 있음
2026년 1분기 실적이 2025년 4분기 대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
최근 미국 걸프만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항로(희망봉 경유)에 Suezmax 한 척을 175,000달러/일 수준으로 성악
해당 항차는 총 85일간 진행되며, 약 14.9백만달러의 순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
올해 초 3.35달러였던 주가는 지난 3월 2일 5.96달러로 정점을 찍는 등 상승세를 유지 중



▶ 오프쇼어/디펜스

▲ Golar LNG 전략적 매각 등 가능성. 올해 FLNG 1~2기 계약 기대

Golar LNG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Goldman Sachs를 자문사로 선임하고 전략적 검토를 시작한 검토 범위에는 회사 매각, 합병, 자산 매각, 기업 구조 최적화 등이 포함 이번 조치는 주식 시장이 플랫폼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Arctic Securities는 인프라 펀드로의 매각을 유력한 결과 중 하나로 예상 Fearnley Securities 또한 합병이나 매각을 "가능성 높은 결과"로 분석 Golar LNG의 주가는 올해 들어 45% 상승하며 54.06달러를 기록했으며, 목표 주가는 66.40달러로 상향 조정 현재 Hilli와 Gimi 등 2기의 FLNG를 운영 중이며, MKII FLNG 1기는 중국 CIMC Raffles에서 2028년 인도를 목표로 건조 중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4번째 FLNG 유닛을 추가로 발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신규 유닛은 20년 기간의 400백만달러 규모 계약이 될 것으로 예상. 추가 발주 시 순자산가치(NAV)가 79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음 Golar LNG는 운영 실적, 자산 유연성,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 비용, 짧은 리드타임 등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 올해 안에 1~2기의 추가 FLNG 계약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자금은 기존 자산의 부채 수용 능력을 통해 조달 가능할 것으로 예상

△ Golar LNG 업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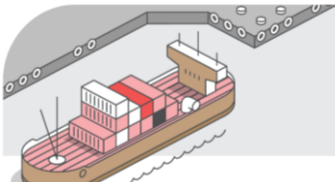
FLNG 전문 기업 Golar LNG는 주주 가치 극대화 및 FLNG 성장 파이프라인 가속화를 위한 전략적 검토에 착수 이번 검토를 위해 Goldman Sachs International을 재무 고문으로 선임 검토 대상에는 기업 매각, 합병, 자산 매각 또는 기업 구조 최적화 등 다양한 대안이 포함될 예정 Golar LNG 이사회 의장 Tor Olav Troim은 주주 및 잠재적 산업·금융 파트너들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과거 세계 최대 석유 회사 중 한 곳으로부터 FLNG 서비스 부문 인수를 제안받았으나, 당시 이사회는 매각을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음 현재 Golar LNG는 Hilli와 Gimi 등 2기의 FLNG를 카메룬, 모리타니, 세네갈 해상에서 운영 중이고, Mk II FLNG 1기는 중국 Yantai의 CIMC Raffles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며, 2028년 인도 예정 Golar LNG의 주가는 올해 들어 43% 상승하며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Ryan Lynch, Hanwha Shipping 대표직 사임 및 '최적화' 단계로의 전환

한화오션의 해운 자회사인 Hanwha Shipping의 초대 CEO Ryan Lynch가 사임 Lynch는 2년 전 한화그룹에 합류하여 해운사 설립의 초석을 다졌으며, 회사가 '설립(Origination)' 단계에서 '최적화(Optimisation)'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임을 사임 배경으로 언급 그는 재임 기간 동안 그룹 내 조선소를 통해 18척의 잔고를 빠르게 확보 Hanwha Shipping은 계열사인 Hanwha Philly Shipyard에 선박을 발주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전략에서 민간 부문의 핵심 파트너 역할을 수행 Lynch는 한화그룹이 미국 조선업 부흥과 글로벌 경제 공급망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강조 한화그룹은 Lynch가 2024년 설립된 Hanwha Shipping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공로에 감사를 표함 후임 CEO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Lynch는 회사 내부에 이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들이 포진해 있다고 언급 Lynch는 본인의 자문사인 Maritime Opportunity Investment Corp의 매니징 파트너로 복귀하여 향후 행보를 구상할 예정 Lynch는 MJLF & Associates에서 선박 브로커로 경력을 시작하여 BRS Shipbrokers, Netco 등을 거침 Navig8 Group에서 차터링 업무를 담당했으며, Gunvor Group에서 5년간 프레이트 트레이더 및 전무 이사로 재직할 바 있음

△ Eni, '이중 탐사 모델'을 통한 프로젝트 기간 단축 및 자금 효율화 전략

Eni는 프로젝트 착수부터 생산까지 걸리는 시간을 업계 평균인 7년의 절반 수준인 3.5~4년으로 단축 Claudio Descalzi CEO는 "생산을 시작해야 자금 회수가 가능하므로 속도가 생명"임을 강조하며, 탐사 시추와 개발 계획 수립을 병행하는 전략을 시행 중 이중 탐사 모델(Dual Exploration Model)이란 1) 탐사 광구 지분을 100% 확보하여 리스크를 해소한 후, 2) 운영권은 유지하면서 지분의 40~50%를 조기에 매각(Farm-out)하는 방식 이를 통해 약 130억달러의 현금 확보했으며, 프로젝트 시작 단계부터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방지하고 개발 자금으로 활용 지난 10년간 Eni의 상업적 탐사 성공률은 75~80%로, 업계 평균의 두 배 이상을 기록 경쟁사들이 M&A를 통한 성장에 치중하며 탐사 리스크를 회피할 때, 오히려 고위험 광구(Pre-salt 등)에 집중 투자하여 거대 유전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둠 이집트의 Zohr, 콩고, 인도네시아 및 모잠비크의 FLNG 프로젝트 등에서 평가 시추 후 즉시 실행 단계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 신규 설비 구축 대신 인근의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개발 속도를 높임 향후 5년 내에 일일 850,000달러/일 이상의 석유 환산 배럴(boe) 규모의 신규 생산량을 확보할 계획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이미 지분 매각을 통해 개발 자금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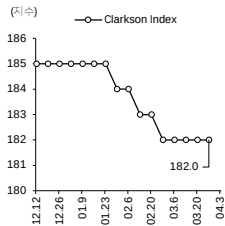
다올 선박

2026.03.29 [81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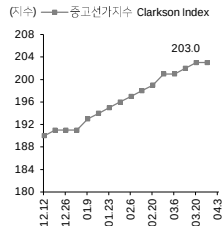
DAOL 다올투자증권

신조선가 &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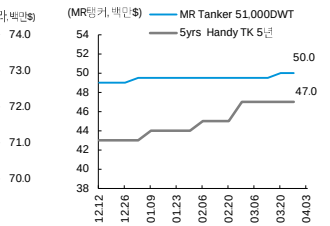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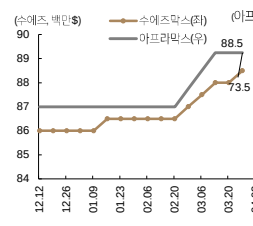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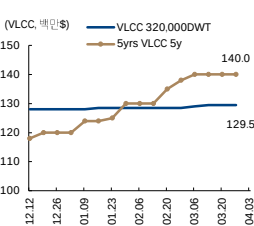
▶ 신조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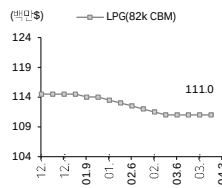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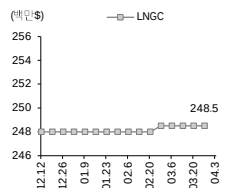
▶ 중고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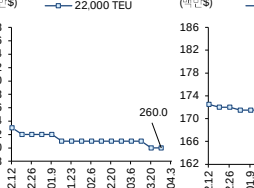
▶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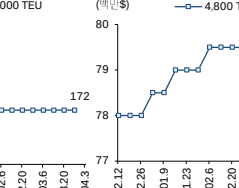
▶ 가스선들



▶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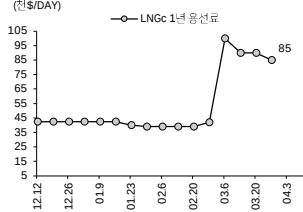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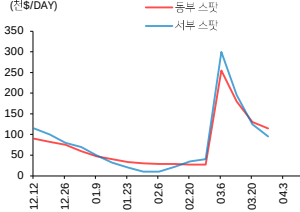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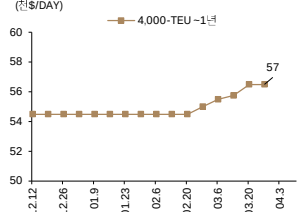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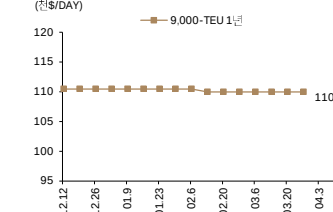
▶ LNG선 용선료(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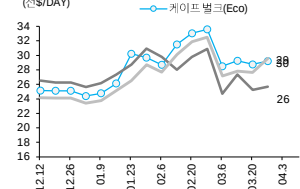
▶ LNG선 SPOT 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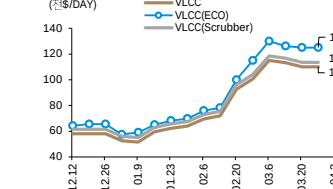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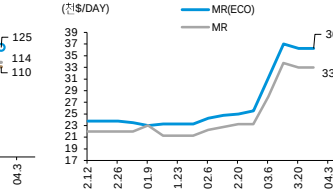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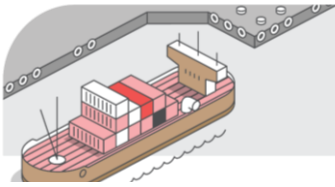


▶ 탱커 - VLCC



▶ 탱커 - MR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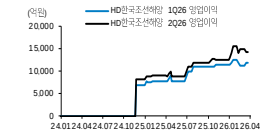
다올 선박

2026.03.29 [81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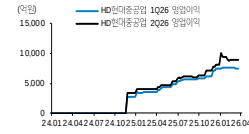
DAOL 다올투자증권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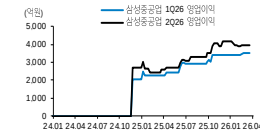
▶HD한국조선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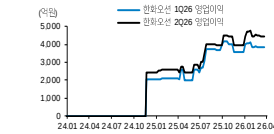
▶HD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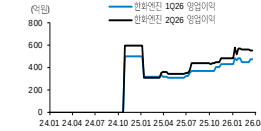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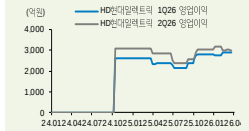
▶한화오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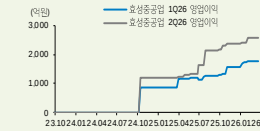
▶한화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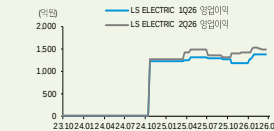
▶HD현대일렉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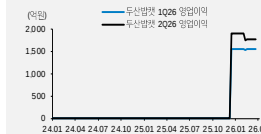
▶효성중공업



▶LS Electr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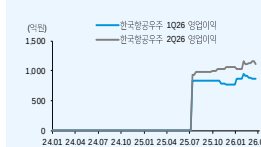
▶두산밥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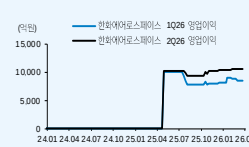
▶HD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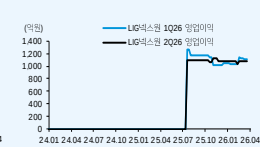
▶한국항공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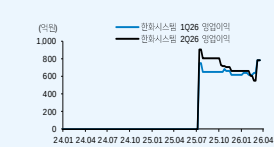
▶한화에어로스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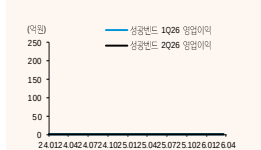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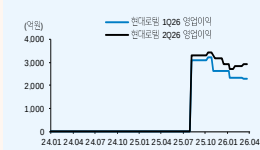
▶성광벤드



▶태광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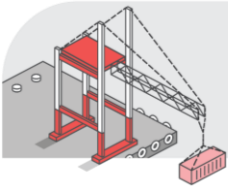
출처: Dataguide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그룹	종목	2026 EPS(원)								Change(%)		VALUATION		
		다산증권	네일전	세달전	두달전	26.02.28	26.03.07	26.03.14	26.03.21	26.03.27	2달전 대비	4주전 대비	2026 PER	증가
조선	HD한국조선해양	44,886	46,721	47,628	48,700	49,052	49,052	49,052	48,632	48,632	0%	-1%	7.5	367,000
	HD현대중공업	22,826	24,108	23,193	26,400	25,772	25,772	25,638	25,638	25,638	-3%	-1%	19.4	498,500
	삼성중공업	1,154	1,345	1,332	1,407	1,409	1,409	1,409	1,409	1,409	0%	0%	18.5	26,000
	한화오션	4,303	4,559	4,470	4,561	4,439	4,439	4,414	4,414	4,414	-3%	-1%	27.9	123,200
엔진	한화엔진	1,695	1,769	1,758	1,824	2,048	2,048	2,048	2,076	2,076	14%	1%	22.5	46,650
	STX엔진	1,350	1,350	1,350	1,350	1,350	1,350	2,147	2,147	2,147	59%	59%	15.6	33,500
	HD현대로템엔진	2,474	2,949	3,061	3,275	3,540	3,540	3,540	3,535	3,535	8%	0%	21.7	76,700
	건설기계	9,176	10,395	10,395	3,584	8,972	8,972	8,972	8,972	8,972	150%	0%	14.5	130,100
발전/중전기	두산밥캣	5,833	5,815	5,779	5,656	5,343	5,343	5,343	5,363	5,363	-5%	0%	11.1	59,600
	두산에너빌리티	798	668	595	628	607	607	579	553	553	-12%	-5%	177.5	98,100
	HD현대일렉트릭	23,533	26,026	26,268	26,462	27,259	27,201	27,201	27,203	27,203	3%	0%	33.6	915,000
	효성중공업	59,077	76,206	76,206	74,953	81,300	83,530	83,530	83,530	83,530	11%	3%	32.0	2,676,000
방산/기타	LS ELECTRIC	13,304	13,637	14,115	14,573	15,286	15,113	15,113	15,139	15,139	4%	-1%	52.9	801,000
	한국항공우주	3,993	3,795	3,766	3,871	3,811	3,801	3,826	3,826	3,814	-1%	0%	48.9	186,50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6,143	46,877	46,549	46,463	45,371	45,694	45,694	45,694	45,694	-2%	1%	29.2	1,335,000
	LIG넥스원	18,385	18,063	17,891	17,917	16,383	16,781	16,781	16,781	16,781	-6%	2%	43.8	735,000
피팅	한화시스템	1,548	1,541	1,541	1,543	1,719	1,644	1,567	1,567	1,567	2%	-3%	79.2	124,100
	현대로템	9,546	9,901	9,677	9,496	8,959	8,975	8,960	8,960	8,960	-6%	0%	20.6	184,200
	현대엘리베이터	9,311	9,311	4,720	4,720	4,720	4,720	4,720	4,720	4,720	0%	0%	18.5	87,100
	성광벤드	2,088	2,308	2,308	2,308	1,800	1,800	1,657	1,600	1,600	-31%	-11%	20.7	33,150
태광	태광	2,048	2,025	2,068	1,925	2,214	2,214	2,214	2,108	2,108	10%	-5%	16.4	34,650
	하이록코리아	4,555	4,555	4,555	4,393	4,393	4,393	4,393	4,393	4,393	0%	0%	8.4	37,050

그룹	종목	2026 BPS(원)										ROE		VALUATION	
		다산증권	네일전	세달전	두달전	26.02.28	26.03.07	26.03.14	26.03.21	26.03.27	26.03.27	2026	2027	2026 PBR	
조선	HD한국조선해양	212,762	217,799	219,809	222,840	221,904	221,904	221,372	220,805	220,805	220,805	22%	24%	1.7	
	HD현대중공업	92,638	95,714	104,136	108,389	104,051	104,051	103,813	103,813	103,961	103,961	25%	27%	4.8	
	삼성중공업	7,432	7,503	7,490	7,568	7,560	7,560	7,560	7,560	7,560	7,560	19%	22%	3.4	
	한화오션	23,297	23,505	23,354	23,615	24,053	24,053	24,069	24,069	24,069	24,069	18%	21%	5.1	
엔진	한화엔진	6,317	6,317	7,372	7,372	7,372	7,372	7,372	7,372	7,372	7,372	28%	35%	6.3	
	STX엔진	10,191	10,191	10,191	10,191	10,191	10,191	10,748	10,748	10,748	10,748	20%	19%	4.4	
	HD현대로템엔진	13,552	14,399	14,562	15,414	17,381	17,381	17,381	17,467	17,467	17,467	20%	24%	11.4	
	건설기계	111,930	113,305	113,305	40,746	94,613	94,613	94,613	93,773	93,773	93,773	10%	12%	1.4	
발전/중전기	두산밥캣	80,046	78,639	79,427	79,170	78,705	78,705	78,705	78,052	78,052	78,052	7%	8%	0.8	
	두산에너빌리티	13,400	12,925	12,697	12,802	12,681	12,681	12,650	12,632	12,632	12,632	4%	7%	7.8	
	HD현대일렉트릭	72,754	75,244	75,493	75,684	76,963	77,277	77,277	77,348	77,348	77,348	35%	38%	11.8	
	효성중공업	306,113	320,161	320,161	316,950	326,619	329,109	329,109	329,429	329,429	329,429	25%	30%	8.1	
방산/기타	LS ELECTRIC	78,044	78,322	78,797	78,853	79,961	79,927	79,927	80,077	80,077	80,077	19%	23%	10.0	
	한국항공우주	23,041	22,627	22,610	22,840	22,294	22,294	22,298	22,298	22,273	22,273	17%	22%	8.4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13,740	214,921	215,374	219,841	232,378	232,378	232,901	232,901	232,901	232,901	20%	22%	5.7	
	LIG넥스원	81,945	75,712	75,423	81,549	77,654	78,143	78,143	78,143	78,083	78,083	21%	25%	9.4	
피팅	한화시스템	16,766	18,781	18,781	18,532	15,253	15,253	15,180	15,180	15,180	15,180	10%	14%	8.2	
	현대로템	35,539	36,906	36,569	36,664	35,890	35,890	35,753	35,753	35,753	35,753	25%	30%	5.2	
	현대엘리베이터	42,842	42,842	30,487	30,487	30,487	30,487	30,487	30,487	30,487	30,487	15%	26%	2.9	
	성광벤드	23,070	23,255	23,255	23,255	22,776	22,776	22,569	22,658	22,658	22,658	7%	8%	1.5	
태광	태광	24,812	24,776	24,680	25,820	26,455	26,455	26,455	26,219	26,219	26,219	8%	9%	1.3	
	하이록코리아	43,975	43,975	43,975	41,221	41,221	41,221	41,221	41,221	41,221	41,221	11%	11%	0.9	

출처: Dataguide



다올 기계 Char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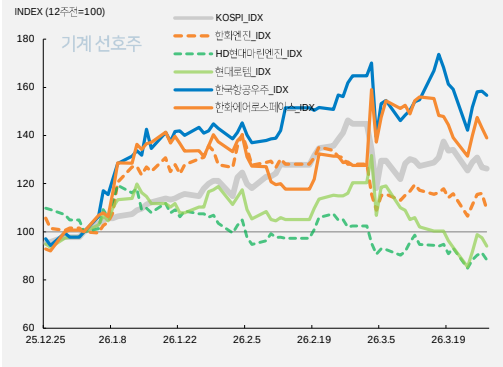
2026.03.29 [815호]

DAOL 다올투자증권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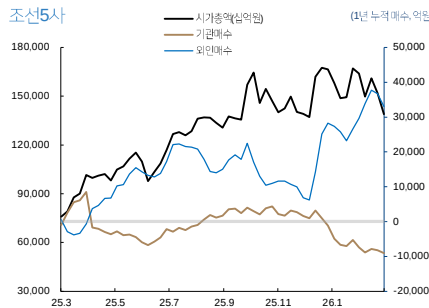
▶ 당사 선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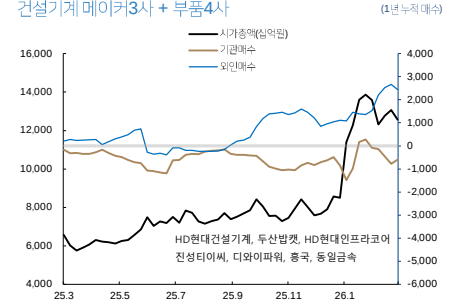
당사 관찰 기계 업종 전체

▶ 기관, 외국인 누적 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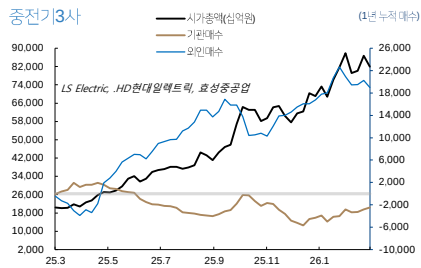
조선5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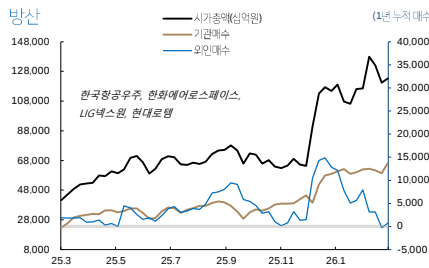
건설기계 메이커3사 + 부품4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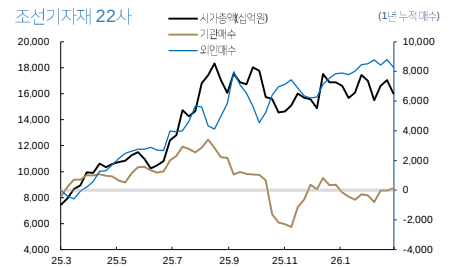
중전기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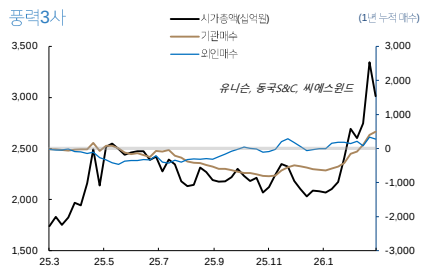
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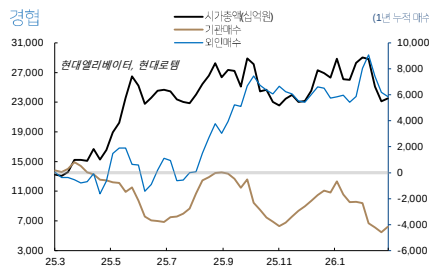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2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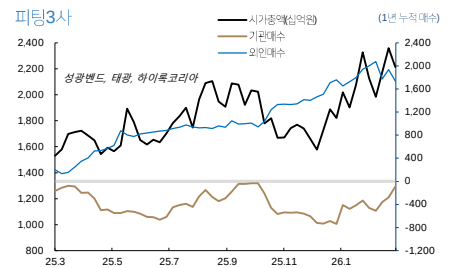
풍력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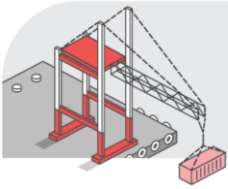


경협



피팅3사





다올 기계 ChartBook

2026.03.29 [81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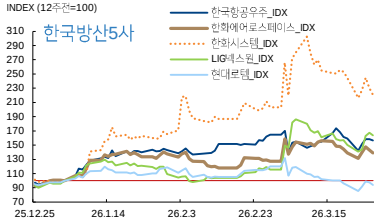
DAOL 다올투자증권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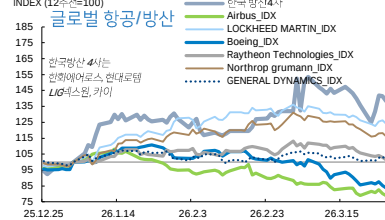
방위산업과 항공부품주

방위산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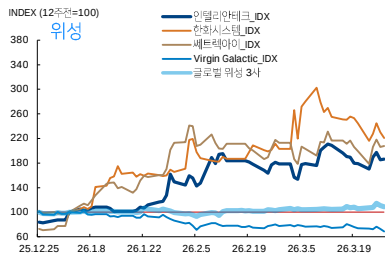
▶ 한국의 방산 3사+한화시스템+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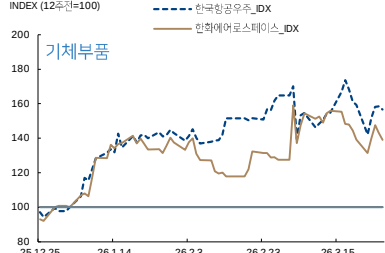
▶ 글로벌 방산/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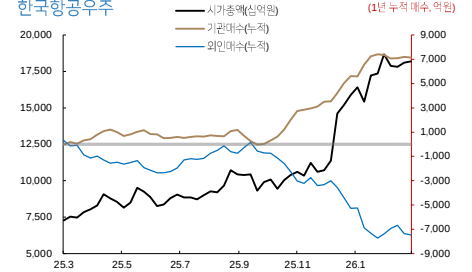
▶ 한국과 해외 위성 피어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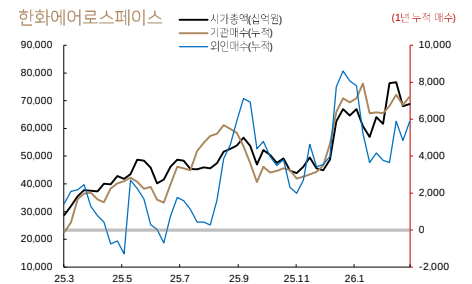
▶ 항공부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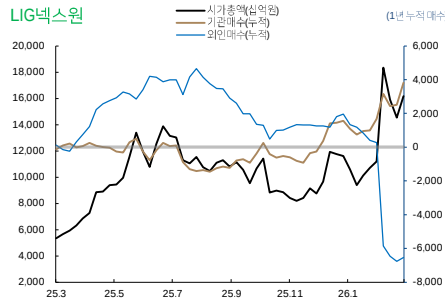
한국항공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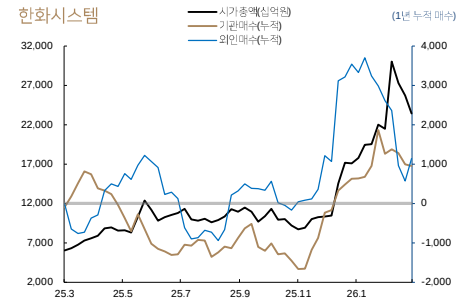
한화에어로스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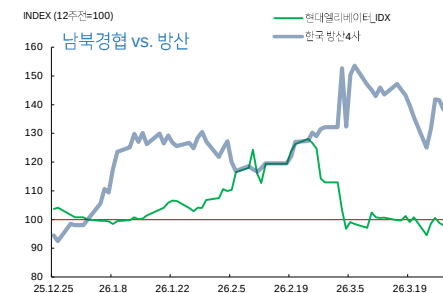
LIG넥스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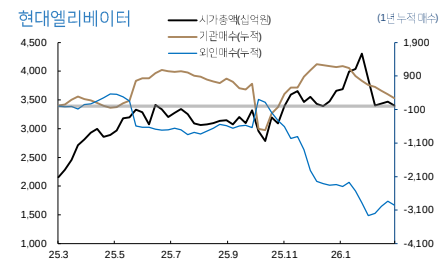
한화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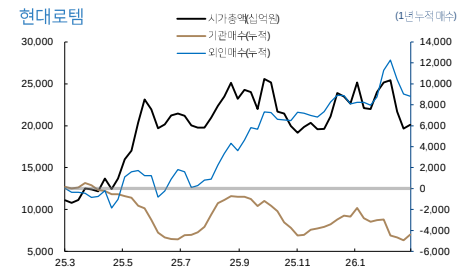
▶ 방산 vs. 경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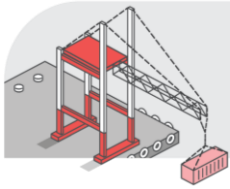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로템





다올 기계 Char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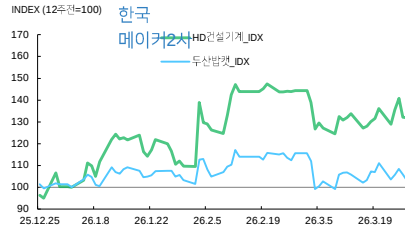
2026.03.29 [815호]

DAOL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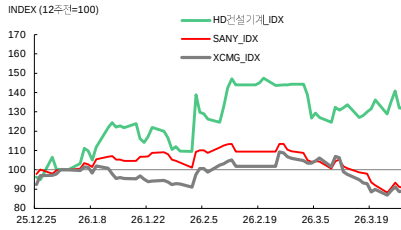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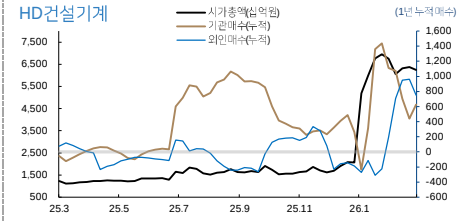
▶ 한국의 메이커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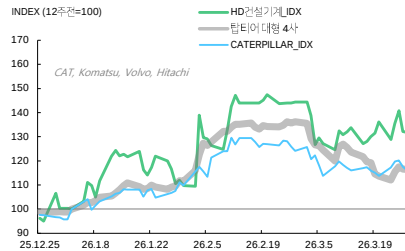
▶ 중국 건설장비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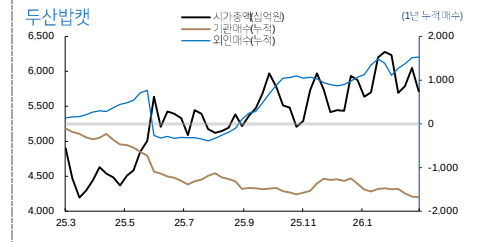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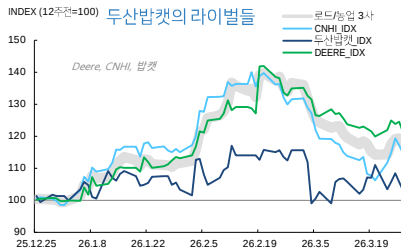
건설기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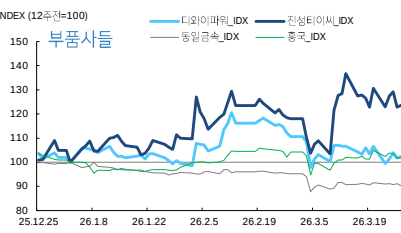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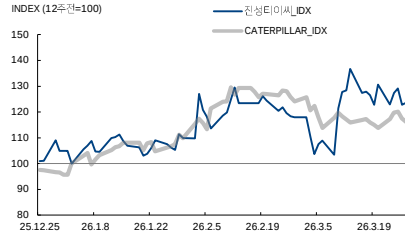
▶ 대형: 두산, 현대건설, CAT



▶ 미니 소형에서 두산발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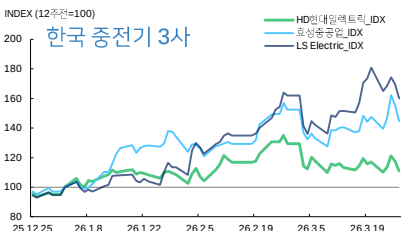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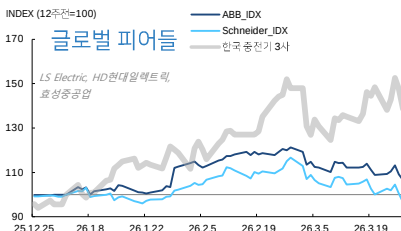


중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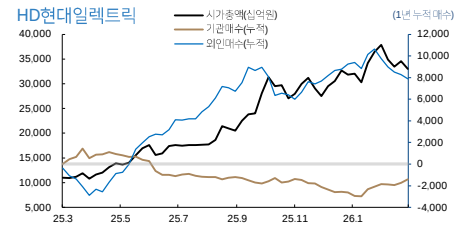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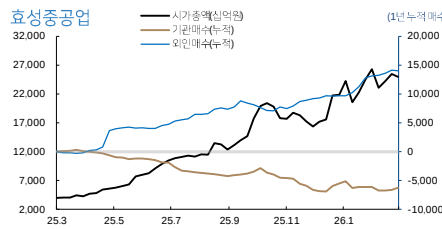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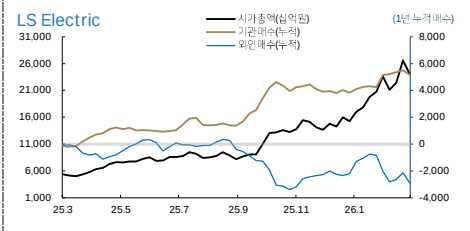
▶ 한국 중전기 3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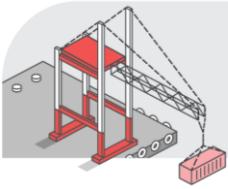


▶ 글로벌 피어 2사



중전기 수급





다올 기계 Char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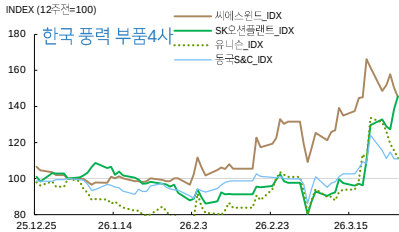
2026.03.29 [815호]

DAOL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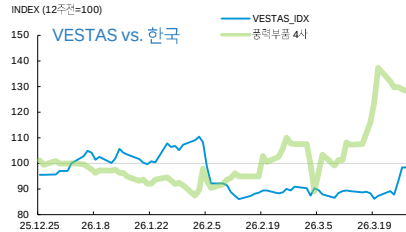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풍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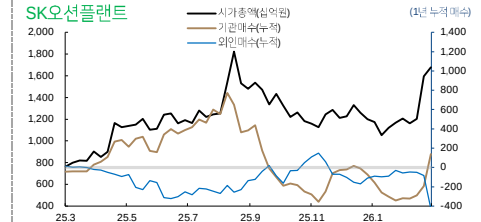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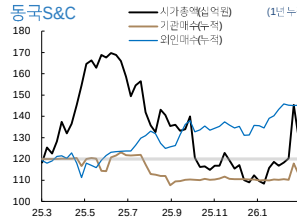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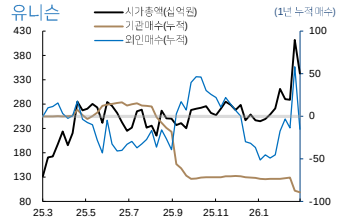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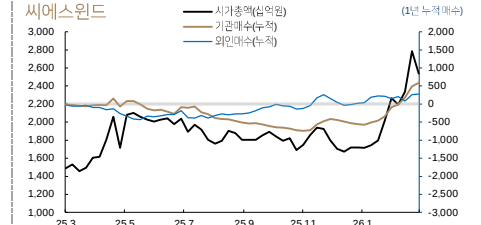
▶ 한국 풍력 부품4사



▶ 한국 풍력 vs. VEST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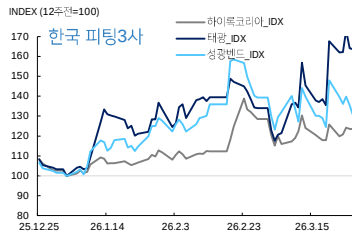


풍력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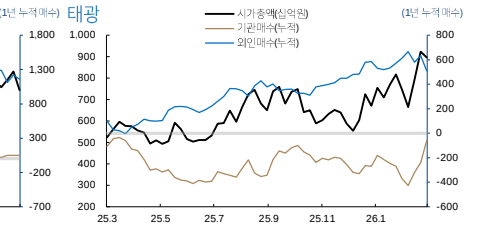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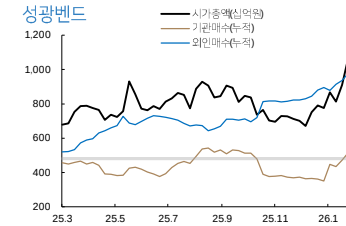


피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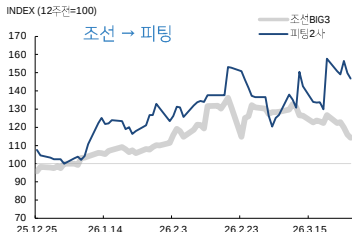
▶ 피팅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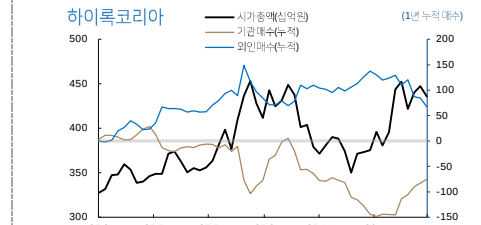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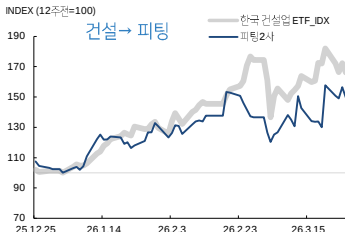
피팅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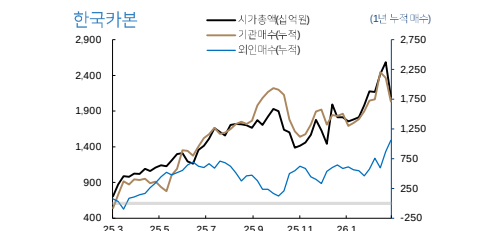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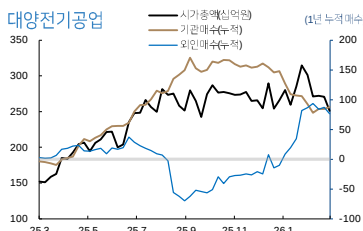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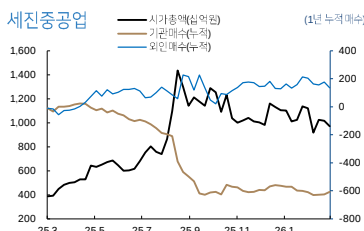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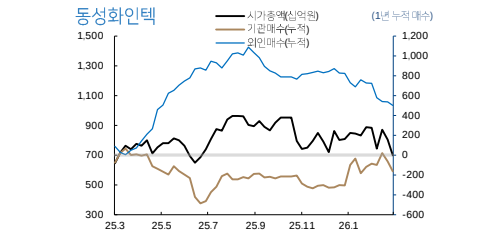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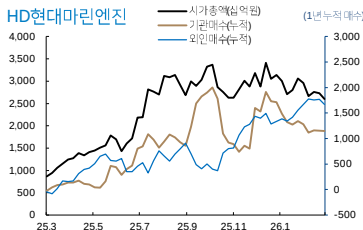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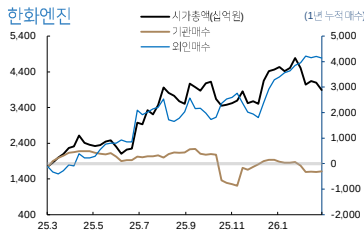
▶ 조선 → 피팅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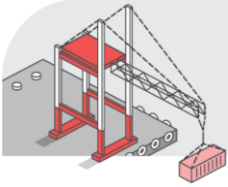


▶ 건설 → 피팅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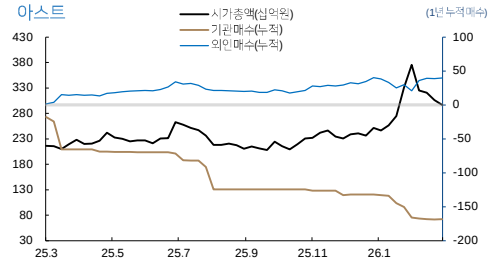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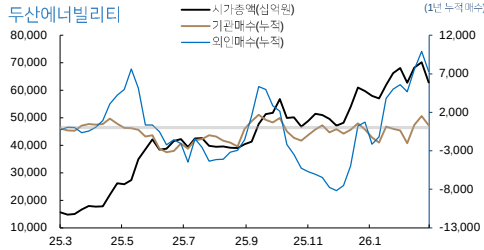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수급





기타 기계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및 그 배우자는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 BUY: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이상 ~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당사의 투자 의견 중 BUY는 "매수", HOLD는 "중립", SELL는 "매도"에 해당.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 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

▶ 투자등급 비율

BUY : 88.7% **HOLD : 11.3%** **SELL : 0.0%**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